

알레르기 관련 논문과 학술지의 발자취(1945-1981년)*

전 AARD 편집장(2013-2016년), 소화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 규 언

서론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기록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있었으나, 'allergy'라는 용어는 1906년 오스트리아 소아과 의사인 von Pirquet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알레르기질환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으나 학문적인 바탕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66년에 Ishizaka 부부, Johansson, Bennich가 IgE를 발견하고, 1967년 RAST 방법이 소개되면서 알레르기라는 학문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알레르기에 관한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 11월 30일 대한알레르기학회(현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를 창립함으로써 알레르기란 학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학술지로는 1981년 창간된 '알레르기'(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학술지)와 1991년 창간된 '소아알레르기'(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학술지)가 있는데, 이들 학술지는 오랫동안 명칭을 변경하며 독자적으로 발행하다가 2013년 3월부터 AARD(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발간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는 양 학회가 공동으로 영문학술지인 AAIR(Asthma, Allergy & Immunology Research)를 발행하고 있다.

목적

2017년으로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우리학회가 그 동안 크게 성장해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인 연구의 발전에 바탕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학술지라는 매체를 통해 발표되고 토의를 거쳐 공유되면서 또 다른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회가 창립되고 1981년 6월 학술지인 알레르기가 창간되기 이전 시기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떤 학술지에 발표되었는

*본 내용은 AARD에 게재 예정인 논문과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학술지 알레르기가 창간되기 이전 시기에는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문을 발표할 학술지도 별로 없어서, 대한의학협회지(1948년 창간), 대한내과학회잡지(1949년 창간), 결핵(1954년 창간), 소아과(1958년 창간), 이비인후과(1958년 창간), 대한안과학회잡지(1958년 창간), 한국의학(1958년 창간), 최신의학(1958년 창간), 대한피부과학회잡지(1960년 창간), 중앙의학(1961년 창간) 등에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었다. 그리고 1981년 학술지인 알레르기가 창간된 이후에는 연구 결과, 종설, 증례보고 등 각종 자료가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되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부터 알레르기가 창간(1981년 6월)된 1981년까지 각종 학술지(간행물)에 게재된 실험 자료가 제시된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종설과 증례 등의 자료도 포함하였다. 자료를 검색하는데는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http://kmbase.medic.or.kr>)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검색어로 ‘알레르기’를 선택했는데, 과거에는 ‘allergy’에 대한 한글 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는 ‘allergy, 알레르기, 알리지, 앨리지, 아루레기’라는 5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그리고 개별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천식(기관지천식, 기관지 천식 포함), 알레르기 비염(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포함), 두드러기(담마진 포함), 아토피피부염(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태열 포함), 알레르기결막염(알레르기 결막염, 결막염), 아나필락시스, 식품알레르기(식품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음식알레르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해당 검색어로 얻은 자료 중에서 중복된 자료와 알레르기(창간호와 1권2호)에 게재된 논문을 제외한 뒤에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에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5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총 30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allergy로 160편, 알레르기로 136편, 알리지로 9편, 앨리지로 3편이 확인되었으나 아루레기로는 한편도 검색되지 않았다. 검색된 총 308편의 논문중에 알레르기 학술지에 게재된 8편과 중복된 43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257편으로, 1945년부터 1981년까지 36년동안 1년에 7편씩 발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Fig 1). 그리고 이들 논문들은 총 33개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 최신의학에 46편이 게재되어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중앙의학 36편, 소아과 23편 등의 순이었다(Table 2).

Table 1. ‘알레르기’관련 용어 5개로 검색된 논문 편수*

분류	검색어	편수	합계	제외	최종
알레르기	Allergy	160	308	51	257
	알레르기	136			
	알러지	9			
	엘러지	3			
	아루레기	0			

*편수: 해당 검색어로 확인된 논문 수, 합계: 논문 편수의 합, 제외: 논문이 중복되어거나 학술지 알레르기에 게재되어 분석에 제외된 논문 수, 최종: 검색된 논문 편수에서 제외 논문을 빼서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논문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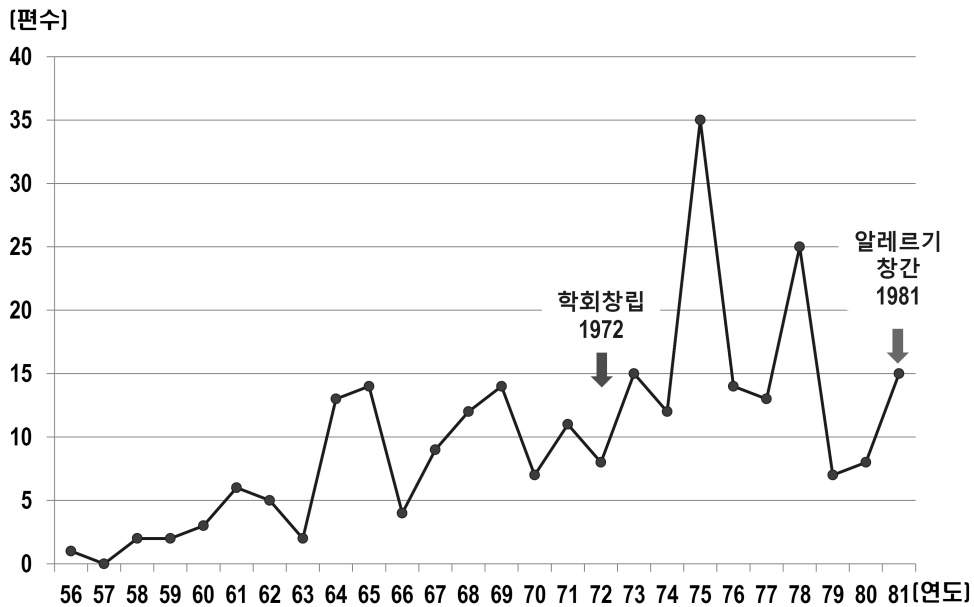


Fig. 1. 알레르기로 검색된 논문의 연도별 분포 (n=257)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논문은 1956년에 발표된 ‘BCG 접종후 튜버큐린 아러지에 미치는 제요소’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알레르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강석영교수와 이상용교수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1960년대 중반부터이며, 두 분 교수께서 각각 65편과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257편의 논문 중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별 알레르기질환에 관한 논문으로는 천식 53편, 비염 7편, 두드러기 17편, 아토피 21편, 결막염 8편, 아나필락시스 1편 등 총 107편 있었으나 식품알레르기로 검색된 논문은 없었다(Table 3).

Table 2. ‘알레르기’관련 용어 5개로 검색된 논문 총 257편이 게재된 학술지와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최신의학	46	대한피부과학회지	6	공중보건잡지	1
중앙의학	36	부산의대잡지	5	감염	1
소아과	23	Yosei Medical Journal	3	예방의학회지	1
대한의학협회지	19	대한외과학회지	3	대한혈액학회지	1
이비인후과	19	대한안과학회지	2	약제학회지	1
한국의과학	19	대한간호	2	진단과 치료	1
현대의학	14	인간과학	2	충남의대잡지	1
결핵	13	인제의학	2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
대한내과학회지	10	대한화장품학회지	1	부산의사회지	1
녹십자의보	10	대한수의사회지	1	군진의학	1
의약정보	9	가정의학회지	1	약학회지	1

Table 3. 개별 알레르기질환별로 검색된 결과*

질환	검색어	편수	합계	제외	최종	질환	검색어	편수	합계	제외	최종
천식	천식	33	76	23	53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23	32	11	21
	기관지천식	24					아토피 피부염	7			
	기관지 천식	19					아토피피부염	1			
알레르기 비염	비염	10	22	15	7	알레르기 결막염	태열	1	8	0	8
	알레르기성 비염	6					결막염	8			
	알레르기 비염	6					알레르기 결막염	0			
두드러기	알레르기비염	0	18	1	17	아나 필락시스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1	1	0	1
	담마진	12					식품(음식) 알레르기	0			
	두드러기	6					식품(음식)알레르기	0			

*편수: 해당 검색어로 확인된 논문 수, 합계: 논문 편수의 합, 제외: 논문이 중복되어거나 학술지 알레르기에 게재되어 분석에 제외한 논문 수, 최종: 검색된 논문 편수에서 제외 논문을 빼서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논문 편수

제한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논문도 알레르기 관련 논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저자나 연도가 틀린 자료 등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제목과 저자 등 서지 사항을 하나 하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 내용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검색어를 적절히 선택하지 못해서 검색되지 않은 논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향후에 학회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과거에 있었던 연구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줄 것을 제안한다.

결론

우리나라에 알레르기란 학문이 도입되고 오늘날처럼 발전한데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굳건히 지켜오신 선배 선생님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후학인 우리도 개척자적인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과 학회가 한단계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이성관. 김경식, 최재규. BCG 접종후 ‘튜버큐린 아리지’에 미치는 제요소. 결핵 및 호흡기 질환 1956; 3:12-43
2. 강석영. 기관지천식 이외의 폐의 아레르기성 질환 내지 類 아레르기성 질환. 최신의학1961;4:23-8
3. 이상용. 몇가지 Allergy 문제와 Immunology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대한내과학회지1962;5:585-9
4. 전종휘. 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 세기. 최신의학사, 1987년
5.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http://kmbase.medic.or.kr>)